

#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

## The Effects of a Career Barriers Searching Program for Girl's High School Students

이상윤\*, 김인영\*\*

위덕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위덕대학교 자율진공학부\*\*

Sang-Youn Lee(sylee@uu.ac.kr)\*, In-Yung Kim(iykim@uu.ac.kr)\*\*

### 요약

본 연구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탐색 집단상담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로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학업 집중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한 것이다. 진로장벽은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과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편견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연구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중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32명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로장벽 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들은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정도가 변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에 의하여 극복이 가능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 중심어 : | 진로장벽 |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진로결정 |

### Abstract

This study is targeted at high school girls explore career barriers to validate the effectiveness of group counseling. Recognize and overcome barriers to careers in the process of setting and achieving career goals for the academic focus and the will to help school adjustment. Career barriers is composed of 7 sub-factors. There are lack of self-apprehension, lack of self-confidence, sex-role conflict and sex discrimination, disapproval by significant others, uncertainty about future, lack of career-related information and lack of financial support. The subjects participated voluntarily 32 girl's high school students were conducted. The study conducted by career barriers for group counseling program students than the control group students relaxed awareness of career barriers respectively.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can be said that the carriers barriers exploration program has an effect on decrease the whole career barriers and four subordinate areas of the girl's high school students.

■ keyword : | Career Barriers | Group counseling Program | Career Decision |

## I. 서론

인간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적, 심리적 욕

구를 충족한다. 따라서 개인의 직업과 일은 인간의 삶에 서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진로선택은 한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매우 중대한 과업이

접수일자 : 2014년 06월 30일

수정일자 : 2014년 08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8월 11일

교신저자 : 이상윤, e-mail : sylee@uu.ac.kr

다. 올바른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능력을 개발하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진로선택과 결정은 인생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 결정은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전체를 통해 지각되어 온 진로장벽이 교육 및 직업을 선택하는 진로의사결정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스스로의 진로포부형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개인이 진로포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면 포부를 제한하게 되므로 직업관련 장애를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1]. 또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혼란과 갈등, 불안을 경험하며 진로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로탐색과 발달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인 고등학교 시기에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진로탐색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특히 올바른 진로상담과 개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의 장애요인과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진로장벽 인식 감소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기존의 대학생 중심의 진로장벽 관련 연구들의 범주를 고등학생 청소년기로 확장하고,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성역할에 대한 지각을 하게 되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도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진로장벽의 의미

지금까지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은 진로선택과 결정과정에서의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적 제약의 지각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2][3]. 진로장벽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진로발달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방해조건’으로 기술하고 있으며[4], ‘장벽’ 또는 ‘지각된 장벽’으로 명명되기도 하였다[2]. Swanson과 Tokar의 진로장벽검사의 개발 후 ‘진로장벽’이란 용어로 통일되었다[5].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진로장벽이라고 하며[6], 내적장벽은 자신감의 부족, 낮은 동기와 같은 심리적인 측면의 장벽들이며, 외적장벽은 주로 환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장벽들로 정의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는 진로선택과정과 선택한 진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독특한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다[7][8].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나타나는 장벽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성취가 부족하거나 능력이하의 성취를 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9]. 그 이후에 직장 여성만이 아니라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진로발달단계에서 여러 장벽을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결과[5][6][10-12]는 진로장벽이라는 개념이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임을 시사한다.

### 2. 진로장벽의 구성요소

진로상담에서 고려해야할 잠재적 장애 목록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개발된 진로장벽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측정도구를 통해 살펴보면,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과 용어의 다양함을 볼 수 있다.

Swanson과 Tokar의 진로장벽검사는 진로장벽의 유목이 대학생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여 세 개의 진로장벽 즉, 태도장벽, 사회적·대인적 장벽, 상호작용적 장벽으로 분류하였다[5]. 지금의 가족, 미래의 결혼과 가족계획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대인적 장벽과 자기개념, 흥미, 직업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태도장

벽과 성, 인종,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어려움, 교육이나 경험과 같은 직업에 대한 준비, 직업 환경에 대한 준비 등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적 장벽으로 구성하고 있다.

Swanson과 Tokar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성차별, 다중역할 갈등, 부적절한 경험과 훈련, 미결정과 정보부족, 진로 불만족 등 18개의 하위척도의 요인구조의 결과를 밝혀냈다[13]. 특히 이 척도는 성에 따라 지각되는 진로장벽의 요인구조가 다른 것으로 여성은 성차별, 자녀의 진로방해, 연령차별과 인종차별을 남성보다 더 많이 지각하였고, 남성은 성역할 갈등, 불확실한 결혼과 자녀계획, 신체적 장애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 척도는 몇 개의 하위요인을 소수의 문항으로 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올바른 요인구조를 가졌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진로와 생활장면에서 발생하는 장벽들을 분류에 포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14].

Swanson과 Daniels의 진로장벽검사 개정판은 13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는 70문항으로 구성된 검사를 활용하여 성차별, 자신감 부족, 다중역할 갈등, 자녀와 진로 요구사항간의 갈등, 인종차별, 부적절한 준비, 의미 있는 타인의 불안정, 의사결정의 어려움, 진로 불만족, 비전통적 진로선택에 대한 지지 부족, 장애, 건강, 염려, 노동시장의 제약, 관계망 만들기, 사회화의 어려움이라는 변인을 제시하였다[6].

Tien은 1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 중국판 진로장벽 검사를 개발하였다[15]. 하위척도들을 살펴보면, 자기 지식의 부족, 성차별, 가족책임, 부적절한 훈련, 지지의 부족, 여성에 대한 태도, 다중역할 갈등, 비전통적 분야에 대한 지지부족, 진로 불만족, 부적절한 경험, 연령과 신체적 장애, 결혼과 자녀의 방해 등이 있었다. 구성요소 중 연령과 신체적 장애, 결혼과 자녀의 방해는 본 연구의 대상자인 여고생의 발달단계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내용이므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여고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게 된 것은, 진로발달에 있어 여성이 남성에 비해 각종 어려움에 직면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 여성의 진로발달의 비중을 강조하고자 선

정하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족과 관련된 역할에 대한 갈등을 더 크게 경험한다[7]. 이로 인해 직업 선택에 영향을 받게 되고, 진로장벽의 영향력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난다[6][11][12][16]. 또한 여성은 진로장벽 외에도 애착, 성역할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6].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제약들이 여성의 진로선택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요인들에 대한 여성의 지각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여성의 진로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손은령은 여대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을 연구한 결과 차별, 직장생활에 필요한 개인 특성의 부족, 다중 역할로 인한 갈등, 미결정 및 직업 준비 부족, 노동시장과 관습의 제약, 기대보다 낮은 직업 전망, 여성 취업이라는 여대생이 지각한 7가지 진로장벽 하위요인을 확인하였고[12], 김은영이 개발한 남녀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장애검사의 하위요인들은 대인관계 어려움, 자기명확성 부족, 경제적 어려움,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직업정보 부족, 나이문제, 신체적 열등감, 흥미 부족, 미래 불안이었다[10]. 이 척도들의 하위요인들은 여고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기에는 진로발달 단계의 차이로 인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김진숙과 이종희가 일반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한 여고생 진학 장벽 검사의 하위요인은 자기이해 및 진학정보의 부족, 학업태도 및 성적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적 불안, 학업풍토 및 제도의 문제, 자신감 부족과 부정적인 자아개념, 주변의 기대와 여건의 갈등, 외적 지원 부족 등 7요인이며, 총 60문항으로 되어 있다[11]. 하지만 표집대상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심리적 상태나 환경이 다른 학년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황매향과 이은설 및 유성경은 진로선택이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있어서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를 개발하였다[17]. 이 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다. 다른 검사와 달리 문항 이해도를 평가하는 단계를 거쳤으며, 학령기 전체를 아우른다는 점, 그리고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개인 내적인 특성 파악에 초점을 둔 검사라는 특징이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본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의 구성요소를 황매향과 이은설 및 유성경의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17]의 하위요인인 '자기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여고생의 진로장벽을 측정하는데 있어 구성요소로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은 위의 7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행되는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과 같이 허정철[19]은 여대생들의 진로태도 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향상을 위해 진로집단 상담프로그램의 체계적 개발과 활용을 제안했는데, 이와 같은 진로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가설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1: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자기 이해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2: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자신감 부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3: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4: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5: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6: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H1-7: 진로장벽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킬 것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 P시 O읍에 소재 비평준화 지역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학교에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 및 실시시간과 내용을 소개한 후,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32명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한 32명의 학생 중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16명씩 무선배치하였다. 실험집단의 참여자 중10회기(매주 2~3회, 매회 90분) 프로그램 진행 동안에 1회 이상 불참한 대상 중에 보충진행에도 참여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여 최종 1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제집단은 추후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을 제외하여 최종 14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진로장벽 척도

진로장벽 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황매향과 이은설 및 유성경[17]의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를 사용하였다.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자기 이해의 부족(4문항)', '자신감의 부족(11문항)',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8문항)',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6문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4문항)',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4문항)', '경제적 어려움(5문항)'이다. 7개의 하위요인의 정의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하위요인별 정의

하위요인	정 의
자기이해 부족	진로 선택 시 고려하는 적성, 흥미, 가치 등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학업태도, 성적문제, 신체적 조건 등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여성이기 때문에 직업선택과정 및 추구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갈등 및 차별에 대한 지각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부모, 선생님, 친구 등의 중요한 타인이 자신의 직업선택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개인이 지각한 직업과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진로선택과정에 대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진로선택 및 추구행동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발달에서 느끼는 장벽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신뢰도는 황매향과 이은설 및 유성경[16]의 연구에서 Cronbach의  $\alpha$ 계수가 .67~.86으로 보고되었다.

### 3.1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은 이론적 배경에서의 논의에 따라 여고생들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탐색하고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진로준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고생에게 맞게 국내에서 연구된 프로그램[18][20][21]과 청소년 진로설정 워크북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 아래의 [표 2]와 같이 매 회 90분씩 전체 10회기로 여고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정책, 학교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활용하고 자율학습을 마친 후 개인자습 시간을 이용해 주 2~3회씩 총 10회기로 구성하여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의 활동기법은 선행연구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참고하며, 구성순서는 오리엔테이션, 도입(1회기),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의 극복(2~4회기),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진로장벽 인식감소(5~8회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9회기), 평가 및 마무리(10회기)의 순서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표 2.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 내용

회기	활동내용
1	1) 프로그램의 목적 및 필요성, 준수사항 이해 2) 프로그램 지도자 및 집단 상호간의 신뢰감 형성 3) 프로그램 참여의 동기형성
2	1) 자신의 과거탐색을 통해 성공경험 확인 2) 과거의 꿈을 되새겨 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결
3	1) 나의 장점과 단점 확인 2) 생각의 중요성 -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 자신의 장·단점을 자신의 특징으로 받아들이기
4	1) 자신의 성격적 특성 이해 2) Holland 직업흥미탐색
5	1)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2) 직업정보탐색 방법 이해 3) 미래의 성장 직업 탐색 4) 흥미, 성격,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6	1) 조사해 온 직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집단 구성원끼리 정보교환하고, 직업결정에 대한 피드백 주기 3) 직업과 관련된 학과 파악
7	1) 꿈과 관련한 대상학과 선택 2) 여성 편향성 지각에 대한 진로장벽 깨기 3) 환경적 장벽인식과 극복
8	1) 나의 의사결정 유형 이해 2) 합리적 의사결정 5단계 이해 3) 합리적 의사결정 연습
9	1) 지각된 진로장벽 극복을 위한 노력방법 인식 2) 꿈을 위한 전략 수립
10	1) 나의 진로목표 구체화 2) 진로장벽 깨뜨리기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 및 이해 3) 프로그램 평가 4) 실천의지 다지기

## 2. 분석방법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장벽 인식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 피험자 간(집단유형 2: 실험집단/통제집단)-한 피험자 내 (측정시기 3: 사전/사후/추후) 2요인 혼합설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험자 내 변인은 검사시기로 세 개의 수준 즉 사전, 사후, 추후 검사로 구성되어 모든 피험자들이 3개의 검사에 반복 측정하도록 하였고, 피험자 간 변인은 프로그램 처치 유무에 따라 2개의 수준, 즉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직후 및 프로그램 종료 5주 후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진로장벽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2.0이며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IV. 결과

1. 진로장벽 프로그램에 의한 진로장벽 인식 변화

아래의 [표 3]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추후에서 얻어진 자료에 대한 전체와 각 하위영역의 평균과 표준편차이다.

표 3. 진로장벽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실험집단(n=14)			통제집단(n=14)		
	사전	사후	추후	사전	사후	추후
전체	97.78 (8.71)	80.57 (9.17)	78.92 (10.17)	98.57 (8.71)	95.07 (8.79)	94.07 (8.92)
하위척도						
자기가 해의 부족	12.00 (2.38)	8.71 (1.77)	9.07 (1.59)	11.42 (2.10)	11.14 (2.28)	10.64 (2.20)
자신감 부족	26.00 (2.80)	22.50 (2.62)	21.85 (1.70)	26.35 (2.20)	25.92 (2.84)	25.28 (2.81)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14.35 (2.20)	12.50 (2.82)	11.71 (2.78)	15.28 (2.26)	14.35 (2.97)	14.50 (3.29)
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11.85 (2.24)	10.14 (1.83)	10.07 (2.01)	13.35 (2.20)	13.14 (1.87)	12.57 (1.60)
미래에 대한 불확실 성	10.64 (1.00)	8.78 (1.96)	8.64 (1.00)	10.57 (2.02)	10.21 (1.92)	10.42 (1.34)
진로 및 직업 정보의 부족	11.07 (1.49)	7.92 (1.81)	7.64 (1.94)	9.92 (2.20)	10.00 (1.70)	10.14 (1.95)
경제적 어려움	11.85 (1.70)	10.00 (1.66)	9.92 (2.16)	11.42 (2.31)	10.28 (2.33)	10.50 (2.02)

\* ( ) 안은 표준편차

프로그램 실시 후의 실험집단 진로장벽 인식이 프로그램 시작 전보다 낮아진 것은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학생들이 진로장벽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래의 [표 4]는 집단(실험집단, 통제집단)과 측정시기(사전, 사후, 추후)에 따라 진로장벽 전체점수에서 통

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과 측정시기 간 및 집단 × 시기 간( $F_{(2, 52)} = 9.007, p < .05$ ) 모두에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진로장벽 전체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측정시기의 단순 주 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검사 시기 간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 $F_{(2, 36)} = 19.624, p < .05$ ),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검사 시기 간 차이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 $F_{(2, 36)} = 2.556, p > .05$ ). 측정시기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Tukey의 HSD절차를 이용하여 사후 개별 비교한 결과,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와 추후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진로장벽 전체 효과가 사후는 물론 추후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진로장벽 점수 분석결과 비교  
(a=사전검사, b=사후검사, c=추후검사)

Source	SS	df	MS	F	P	Tukey HSD
상호작용						
측정시기×집단	3966.700	2	1983.350	44.980	.000	
오차(측정시기)	1587.400	36	44.094			
측정시기						
시기@실험집단	3054.905	2	1527.452	19.624	.000	a, b, c
오차	2023.762	26	77.837			
시기@통제집단	140.762	2	70.381	2.556	.097	
오차	715.905	26	27.535			
집단구분						
집단@사전	2.286	1	2.286	.030	1.000	
오차	1973.571	26	75.907			
집단@사후	1471.750	1	1471.750	18.219	.000	
오차	2100.357	26	80.783			
집단@추후	1605.143	1	1605.143	17.536	.000	
오차	2379.857	26	91.533			

하위요인 중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영역에서는 집단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측정시기 간 및 집단 × 시기 간 모두에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영역에서는 집단 간과 측정시기 간에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집단 × 시기 간에서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어려움

영역에서는 집단 간에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측정시기 간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집단 × 시기 간에서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여고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이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은 여고생의 진로장벽의 하위 영역 중에 자기이해의 부족, 자신감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진로장벽 전체점수와 하위영역의 점수가 부분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은 실제로 여고생들의 진로장벽 인식을 완화시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도출한 것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여고생이 인식하는 진로장벽은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전환을 시키거나 극복의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학생들은 통제집단 학생들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이 완화되었다. 이는 진로향상과 발달을 어렵게 만드는 진로장벽이 고정불변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개입에 의하여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의 하위 영역 중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현정[23], 김중운과 박성실[2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김은희와 김봉환[18]의 연구에서 여성취업 고정관념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 연구의 성역할 갈등 및 성차별에 의한 진로장벽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오랜 기간 고착화된 여성의 진로장벽과 여성 취업과 승진의 어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대학생 중심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여고생으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대학진학 이전의 진로탐색 과정에 놓여있는 청소년기의 진로장벽 인식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진로탐색은 인생의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실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대학생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진로탐색 효과 검증 연구들이 점차적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는데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진로장벽 탐색 프로그램을 여고생에게 적용시켜 진로장벽 인식을 감소시킨 결과를 얻음으로써 연구대상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그램보다 요소와 구성면에서도 폭을 넓혔다. 또한 연구방법 면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통해 사전과 사후 및 추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타당성을 높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의 가설을 일부분 수용하여 결론으로 이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P시의 읍에 소재한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제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14명씩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넓히고 집단원의 수도 확대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약 5주간에 걸쳐 적용한 결과를 검증한 것이었다. 그러나 좀 더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횟수와 기간을 달리하여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그 지속성 정도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추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에 대한 연구일 뿐, 진행과정에서 집단 참여자 개개인의 진로장벽 인식에 대한 과정연구를 실시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프

로그래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과정연구를 개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평가방법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자기보고식 지필검사 형식으로 참여했으므로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관찰이나 면접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방법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구성하고 직접 실시한 후, 효과검증을 하였으므로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다른 지도자가 집단을 운영했을 때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L. S. Gottfredson,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Vol.28, No.6, pp.545-579, 1991.
- [2] L. F. Fitzgerald, R. E. Fassinger, and N. E. Betz, "Theoretical advances in the study of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W. B. Walsh & S. H. Osipow (Eds.), *Handbook of vocation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67-110, 1995.
- [3] R. W. Lent, S. D. Brown, and G. Hackett,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45, No.1, pp.79-122, 1994.
- [4] J. O. Crites, *Vocational psychology*, New York: Mc Graw-hill, 1969.
- [5] J. L. Swanson and D. M. Tokar,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Behavior*, Vol.38, No.1, pp.92-106, 1991.
- [6] 손은령,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1.
- [7] N. E. Betz and L. F. Fitzgerald, *The career psychology of women*. Orlando, FL: Academic press, 1987.
- [8] L. F. Fitzgerald and J. O. Crites, "Toward a career psychology of women: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7, No.1, pp.44-62, 1980.
- [9] E. Matthews and D. V. Tiedeman, "Attitudes toward career and marriage and development of lifestyle in young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11, No.4, pp.374-383, 1964.
- [10] 김은영, "한국 대학생 진로장애탐색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과 심리치료*, 제14권, 제1호, pp.219-231, 2001.
- [11] 김진숙, 이종희, "일반계 여고생이 지각한 진학장벽", *상담학연구*, 제4권, 제4호, pp.773-788, 2003.
- [12] J. L. Swanson and K. K. Daniels,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revised*, Unpublished manuscript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 1995.
- [13] J. L. Swanson and D. M. Tokar,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areer barriers invent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39, No.3, pp.344-361, 1991.
- [14] 강근모, *진로자기효능감 향상 및 진로장벽 감소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1.
- [15] H. S. Tien, "Development initial validation of Chinese career barriers inventor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LA, 1998.
- [16] N. E. Betz, Basic issues and concepts in career counseling for women, In W. B. Walsh & S. H. Osipow(Eds.), *Career counseling for women*,



pp.237-261 Hillsdale, NJ: Erlbaum, 1994.

- [17] 황매향, 이은설, 유성경, “청소년용 여성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상담학연구, 제6권, 제4호, pp.1205-1223, 2005.
- [18] 김은희, 김봉환,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 장벽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pp.2225-2239, 2009.
- [19] 허정철, “진로집단상담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 태도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0호, pp.356-364, 2013.
- [20] 김종운, 박성실, “진로장벽탐색 집단상담이 여대생의 진로장벽 인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3호, pp.209-230, 2010.
- [21] 현수경,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일반계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2010.
- [22] 이지혜, 진로탐색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사결정유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2009.
- [23] 김현정, REBT를 활용한 진로집단상담이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2011.

저 자 소 개

이 상 윤(Sang-Youn Lee)

정회원



- 2010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학과(교육학사)
- 2012년 8월 : 경북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2년 3월 ~ 2013년 12월 :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동부지역 학습클리닉센터 학습전문가

▪ 2014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학습·진로상담 및 교육, 부모교육

김 인 영(In-Yung Kim)

정회원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정치학사)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언론학석사)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언론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교수  
<관심분야> : 토론·스피치 기반 의사소통 교육, 갈등 관리와 조정, 상담과 커뮤니케이션